

시론

전쟁전후수익이 막대한 경제

얼마전 남조선군이 판도주변수역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연합 반잠수함훈련 《세드레이크》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해상순찰기들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추적, 탐색하고 반잠수함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 남조선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지에서도 《혹한기》 야외기동훈련을 벌이고있다.

지난 한해 동안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과욕적인 군비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여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자들이 올해 정초부터 또다시 남조선에서 화약냄새 풍기며 동족대결의 불장난을 해대고 그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해외까지 나가 전쟁광기를 부리는것은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고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서 그들이 임버쳐려 위우는 《평화》란 동족대결과 복잡전

반미, 반전투쟁과 통일운동을 더욱 고조시킬 의지

—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 —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반미, 반전투쟁과 통일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어나갈 의지를 표명해 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전한데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산하 조직들인 청년학생본부, 녀성본부, 문예본부 등은 물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각종 송년모임, 년차장전담 등을 통해 새해에 자체의 통일운동력량을 확대강화하며 분렬주의 사연습과 무력증강, 군비증액책 등을 반대배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여러 계기들에 북과 남이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련대활동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진각중》, 《대한불교천태종》을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겨레하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한편 얼마전 광주진보연대를 포함한 전국민중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연합군사연습의 영구중단, 《싸드》전략무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이를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등을 주최한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도 새해 정초에 《정부》가 대화를 희망한다는 립장만 반복할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시정책》철폐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반전, 반미투쟁열기는 식을줄모르고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지난해에 남조선의 여러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진행되었던 반미, 반전 투쟁들

남조선에서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작으면서도 확실한 집행》에 대해 떠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생활밀착형공약》이라는것을 개발 및 광고하는 놀음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선거력사상 전례가 드문 정치막간극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남조선정국을 놓고보면 민심의 반수정도는 여야당의 후보들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무관심, 선거무관심, 후보무관심 등이 높아지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던 계층들도 지속되는 당파싸움과 후보들간의 후색선전에 도리머리를 저으며 등을 돌리고있는 형편이다.

이들을 납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중도층, 정치무관심층의 교홍, 교홍, 아픔을 《리해

환멸만을 불러오는 선심성공약들

《보완》한다는 《생활밀착형공약》인것이다.

하지만 속병 끝는데 외용약을 바르는 격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이 내놓는 공약이라는것은 유지하고 몰상식한것으로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녀성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녀성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없이 일방적으로 《녀성가족부패지》를 운운하고있으니 과연 누가 거기에 공감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니 녀성들로부터 《부인이 온갖 범죄로 문제가 되니 녀가부패지를 들고나오다》, 《거머리처럼 표뿔아먹겠다고 던진 녀성혐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것이다.

청년들도 《녀성혐오가 아니고서는 이대남(20대남성) 표심을 당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윤후보와 《국민의힘》이 불쌍하다》, 《녀가부패지가 아니라 녀성혐오정당(국민의힘)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지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돌아쳐도 지지를

갈수록 치열해지는 정치권싸움

《연합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년초에 들어와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처가의 부정부패와 당내갈등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급속히 하락한 소식과 이로 하여 윤석열이 얼마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하고 새로 구성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중헌은 윤석열이 린이는 말실수와 처가의 부정부패사건으로 하여 자신은 물론 당의 지지율까지 대폭 끌어내리자 윤석열에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각본을 써주도록 연기만 해달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를 폭두각시 취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당대표 리준석도 윤석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선거에서 이길수 있다고 조롱한것으로 하여 《국민의힘》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격화되었다고 한다.

박근혜의 이 너두리를 위하여라면 자기는 전혀 죄가 없으며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는것이이다. 참으로 뻔뻔함과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이발빠진 암독사자가 저지른 특대형부정부패범죄에 대해 일방의 사죄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일들이 적재로 락인적이었다》, 《목목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리행하였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이었다》, 《《세월》호침몰당시 해피한 소문과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다》, 《1주일에 4번씩 감행되는 《살인적인 재판》을 참

고 생각하지 모르겠다. 《죽음이 다된것같다고 강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총괄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자신사퇴해버렸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도 《대통령》선거사상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야당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가 해산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떠들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윤석열에게 실망한 보수층이 《국민의 당》의 안철수에게로 쏠리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새해에 들어와 안철수가 다음기 《대통령》선거의 변수로 될수 있다고 평하고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안철수를 《꼭 필요한 인물》, 《큰 역할을 한 정치인》, 《비중있는 인사》 등으로 추어지면서 끌어당기려 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반드시 결산해야 할 일본의 최행

지난 1월 5일은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지난 세기 십나라야만들이 저지른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단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12시 서울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수요집회를 개최한 남조선의 《정의기억연대》(《정의의원》)와 피해생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우리가 있는 한 일본의 만행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구호판들을 들고 일본당국을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미 세상에 그 진실이 남김없이 폭로된것처럼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국가적강령으로 유괴, 랍치하여 침략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인류력사에는 라민족을 대상으로 벌린 위대한 죄악들의 반인륜적범죄들이 수많은 기록되어있지만 일본과 같이 《전쟁능력제고》라는 구실밑에 조선녀성들을 침략전쟁터에 끌고다니며 그들의 청춘의 삶과 모든 권리를 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레는 찾아볼수 없다. 정선나라족속들이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하며 잔악무도한 야수의 무리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처를 받으면서 《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왜나라족발아들의 반인륜범죄를 우리 민족은 반드시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다》라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고있다.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율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모범할수 없는 일본은 친백배로 결산할것이다》라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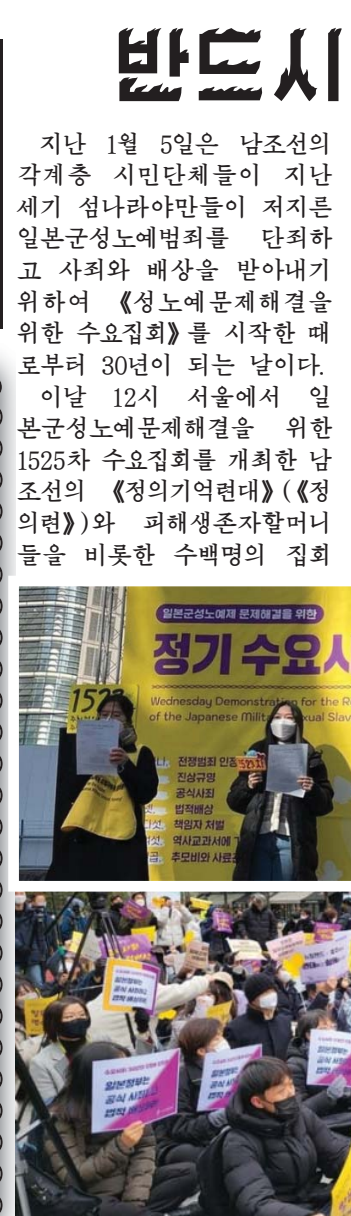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은 허망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기 위해 날뛰는것은 이미 저지른 죄악으로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것으로서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범죄를 추호도 용서치 않고 친추만대를 두고 기어이 결산할것이며 당면하여 일본해 침략전쟁에 날뛰다가 패망한지 70여년이 넘었고 남조선에서 일본군



정치는 정치인 OUT

소심공민·자영업자의 현실을 인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모습

《내가 경쟁자와 포용하는것은 그를 목졸라 죽이는것이다》

고대로마의 독재자 네로가 한 말이다.

내부분쟁과 갈등으로 흥을 잃은 《국민의 힘》이 《국적인 통합》을 하고 《하나의 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윤석열과 리준석이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의 고사가 절로 떠오른다.

그도 그럴것이 《애송이》, 《정치생둥이》라고 서로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원시하며 뛰쳐나가고 다시 합치고 하기를 그 몇번,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함몰》이 되었을가.

리준석이 자칭 《평강히성공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니라는것이 일반적으로다.

《국민의 힘》 내부의 말들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리준석의 생각에는 변함없이 후환이 있을가 두를 얹어야 본다》, 《오늘의 원팀이 언제 원망팀으로 바뀔지 모른다》, 《선내위를 해체하고 선내분으로 바꾼다고 한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 역시 《윤석열과 리준석이 불거진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내용없는 화해》에 당내부의 우려는 여전하다》, 《《문지마 통합》인턴에 곳곳에 깔린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도사리(국적인 화해)만 반복》, 《리관을 제거하지 않은채 원팀만 해친 《불안한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분석한다.

언제는 어서일찍 《반강조 통합》을 하더니 이제는 남조선민심이 평한대로 《시한탄을 품은 통합》을 하였으니 우에서 언급한 고사대로 리준석과 윤석열이 상대를 포용한 손으로 임의의 시각에 상대를 죽일 목초르기를 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최세의 권력광들이 각기 제정적리속을 앞세우며 정략적으로 결탁한 《국민의 힘》의 앞날이 참히 보인다.

본사기자 김광혁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시대》,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광고하며 수백가지의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서민들에게 차려진것은 국민불행시대, 민생도탄시대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이전 보수 《정권》의 집권 4년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폭압에 숨이 막혔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사(□)년》이었다고 단

다고 평하고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안철수를 《꼭 필요한 인물》, 《큰 역할을 한 정치인》, 《비중있는 인사》 등으로 추어지면서 끌어당기려 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시대》,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광고하며 수백가지의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서민들에게 차려진것은 국민불행시대, 민생도탄시대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이전 보수 《정권》의 집권 4년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폭압에 숨이 막혔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사(□)년》이었다고 단

단평 암독사의 《선전포고》

《독사라고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것》이라고 떠벌이며 정계전출기도까지 드러낸것을 보면 아직도 선무당의 폭두각시가 되어 온 남조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던 때를 그리워하며 권력의 자리를 또다시 타고앉아 저주로운 파자를 부활시키려는 계몽을 꾸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한편 도사에서 박근혜는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누구라도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복수심을 드러냈다.

《독사그네》, 《일음공주》로 불리었던 박근혜의 기질이 그대로 숨배인 독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가 도서의 제국사체를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가지 않습니다》고 하였던데 그녀의 《그리움》이란